

신앙고백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83장 다함께

1.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2. 반가운 빛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3.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4.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흠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후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 말은 이

(기도순서는 자녀, 또는 가정의 연소자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전염병으로 자유롭지 못한 이 나라와 세계에 평화를 주옵소서. 기근과 분쟁으로 분열되어가는 이 세계를 공활히 여기시며 우리가 소망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해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더 경외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터에서 일하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임재 하옵소서. 앞날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닥쳐올 때 그 마음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 인생길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임재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에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예 응답하시어 다음 세대와 이 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문은 인도자가 읽거나, 가족 구성원이 돌아가며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 은혜가 넘쳐 흘러나오리라 말은 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나는 왜 큰 발톱 세 개가 있어?" "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을 때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있단다." 아기 낙타가 다시 물었다. "엄마, 그럼 내 기다란 눈썹은 왜 있어?" "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여행할 때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해준다." 아기 낙타가 또 물었다. "엄마, 그럼 내 등에 큰 혹은 왜 있는 거야?" "아가, 그건 우리가 사막을 오래 여행할 때 섭취할 양분을 그곳에 저장해 놓는단다." 아기 낙타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모래 속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큰 발톱이 있고, 사막의 뜨거운 햇빛을 막기 위해 긴 눈썹이 있고, 오랜 여행에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 큰 혹이 있고.. 그런데 엄마!" "왜 아가?" "우린 왜 동물원 안에 있어?"

교회를 다녀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신자의 연약함을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교회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앞에 놓여 있는 태산도 뿔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도 인내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은데, 막상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내 속에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힘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1단계에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를 받아 마시는데서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1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슨 단계입니까? 성령이 자기 안에서 흘러넘치는 단계입니다. 옥한흠 목사님께서서는 전체 요리인 에피타이저와 주 요리인 메인 메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궁전에 초대받은 우리가 에피타이저만 먹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레스토랑을 가면 에피타이저만 먹어도 배가 불러 메인 메뉴는 그냥 남겨 놓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레스토랑에서는 메인 메뉴가 중요합니다.

레스토랑에서 전체 요리인 에피타이저가 아닌 메인 메뉴가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맛보는 것보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삶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7-38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옛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왜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은 생수가 우리의 혀와 목만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타고 내려가서 배까지 시원함을 가득히 느끼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영적인 의미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가슴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쁨과 벅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나는 것은 일생 동안 단 한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자신과 세상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영적 감화력과 감동 있는 삶, 영적권세가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늘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에 가듯이, 핸드폰 배터리약이 떨어지면 충전을 하듯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늘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삶에 드러날 때 비로소 십자가의 능력이 온 세상을 화목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새성전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분명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 때 생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봉 헌 다 함 께
봉 헌 기 도 가 족 중

(헌금은 추후 주일예배 참석 시 또는 교회별 안내에 따라 봉헌하시면 됩니다.)

찬 송 191장 다 함 께

1.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맘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어나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후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 기 도 문 다 함 께

2021년 10월 11일 월요일

1인 또는 여럿이 드리는

가정 예배문

 한마음교회